

확산을 막으려는 노력

어느 곳에서나 마찬가지로 세계적인 유행병이 일본 사회를 강타했습니다. 마리아니스트의 일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카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도쿄 내 교회는 폐쇄되었습니다. 도쿄교구 대주교님은 교회를 통해 평신도들에게 부활절 주간엔 미사가 없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대주교님 말씀대로 우리는 밖에 나가지 않고 부활절 기도와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우리는 성모님처럼 평범한 부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몇몇 일본 마리아니스트 평신도 공동체 회원들은 자기 자신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수제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특히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거나 가족과 가까이 살지 않는 그런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전화나 엽서를 보내 안부를 물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새로운 규칙을 통해 일상생활이 부분적으로 제한되고 있지만, 여전히 “시대의 징후”를 알아보고 성모님처럼 그런 징후에 대해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된 마음으로 따뜻한 안부와 축복, 평화를 전합니다!



반다나 가게에서 만든 마스크



편의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카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더욱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http://tokyo.catholic.jp>
또는 히라타 키요시에게 이메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mlckh1243@gmail.com